

夢診의 역사에 관한 연구

강동윤 · 강정수*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Study on the History of Diagnostic Significances of the Dream

Dong Yun Kang, Jung Soo Kang*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We spend a quarter of every night on the dream, it means for us to spend about six years having a dream. But, any portion of the dream are remained the mystery in these days and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se mystery have not been solved from old times. So, the people have not known about the essences of dream for a long time although they have experienced in dreaming in the early days of human history. Bu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dream to modality of disease diagnosis because many evidences that the dream represents the physiologic and pathologic changes in the human have been proved in recent days. So, we are going to inquire into the things being scattered over many texts of the Oriental Medicine, including the Internal Classics(內經), about the dream and to look the diagnostic significances of the dream with some examples of the modern psychiatric accomplishments.

Key words : dream, diagnostic significances of the dream, Internal Classics(內經)

서 론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매일 잠을 자고, 그중 약 4분의 1을 꿈의 세계에서 보내는데, 이는 평균수명에서 대략 6년을 꿈을 꾸면서 보내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꿈의 현상적 보편성에 비해 꿈의 본질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무척이나 적다.

역사를 고찰해 보면 解夢은 夢魂의 관념을 기반으로 한 占卜의 의미를 가지고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殷周時代에는 해몽으로 국가의 길흉을 관찰하고 해몽을 국가의 대사를 결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았고, 春秋時代 이후부터는 해몽이 세속적으로 변해 갔으며 도교나 불교를 비롯한 나름의 체계를 갖춘 종교들조차 해몽을 대체하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의 신학적인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오늘날에도 해몽에 관한 서적이 만연하고 관련 인터넷 사이트가 범람하는 현실을 볼 때 해몽은 여전히 유력한 사회적 현상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이것이 미신인지 아닌지 여부는 종교적인 문제이며, 또한 의학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여기서 논할 성질의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의학적 해몽이론의 기원은 꿈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 가운데 사람들의 꿈과 건강에 대한 인식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며, 때문에 꿈과 관련한 역대의 이론과 철학은 앞으로 우리가 고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의 특성상 七情不調로 인한 각종 질병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포괄적 정신활동의 산물인 꿈의 의학적 연구는 절실히리라 생각 아래, 한의학에서는 꿈을 어떻게 인식하였으며 실제 임상에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먼저 夢診에 대하여 時代別로 의서와 의가를 고찰한 바, 의미있는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본 론

1. 『內經』에 나타나는 夢診 관련 부분에 대한 概述

의서에 '夢診'란 용어가 처음 나타난 것은 隋·楊上善의 『黃帝內經太素』이지만, 여타의 수많은 한의학 이론과 마찬가지로 夢診과 유관한 내용 역시 『內經』에서 기원하며, 또한 비교적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단적으로 『內經』 81篇 가운데 꿈을 직접 적시한 篇名도 있다.

1) 형성 원인에 대한 인식

꿈의 형성 원인과 관련하여 『內經』에서는 外邪의 침입, 臟腑機能의 실조, 정서적인 요인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교신저자 : 강정수, 대전시 동구 용운동 96-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omdkjs@dju.ac.kr, · Tel : 042-280-2617

· 접수 : 2007/07/09 · 채택 : 2007/07/27

『靈樞·淫邪發夢』에서 “黃帝曰 願聞淫邪沖衍，奈何？歧伯曰 正邪從外襲內，而未有定舍，反淫于藏，不得定處，與營衛俱行，而與魂魄飛揚，使人臥不得安而喜夢。”이라고 하여 꿈이 正邪의 침입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正邪라는 것은 外邪의 침입으로 인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부정적인 자극의 총칭으로 볼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四時氣候의 자극뿐만 아니라 외부의 視覺的·聽覺的·嗅覺的·味覺的·觸覺의 자극 모두로 正邪의 외연을 확대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張介賓은 “무릇 외부에서 隅陽勞逸에 감촉되면 내부에서 聲色嗜欲이 움직이는데 단지 사람의 마음에 간섭함이 있으면 모두 正邪라 이르며 또한 외부로부터 내부로 침입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¹⁾.

또한 『內經』에서는 외부적인 요인의 자극 외에도 꿈을 꾸는 것이 臟腑機能의 失調, 隅陽氣血의 失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素問·脈要精微論』²⁾에서는 “是知陰盛則夢涉大水恐懼，陽盛則夢大火燔灼，陰陽俱盛則夢相殺毀傷。”라고 하였는데, 『素問·陰陽應象大論』³⁾에서는 “陽勝則熱，陰勝則寒。”이라 하였으니, 階陽의 失調로 질병이 되어 寒熱로 나타나는 것이 꿈에서는 ‘水火’로 표현이 된다. 또한 『素問·方盛衰論』⁴⁾에서는 “是以少氣之厥，令人妄夢，其極至迷。”라고 하였다. 즉, 인체는 階陽의 調和가 중요하여 ‘陰平陽秘，精神乃治’해야 하므로, 단지 少氣의 厥逆만이 꿈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階陽, 上下, 五臟六腑의 盛衰와 均衡의 壘失이 모두 꿈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素問·脈要精微論』⁵⁾에 “是知陰盛則夢涉大水恐懼，陽盛則夢大火燔灼，陰陽俱盛則夢相殺毀傷。上盛則夢飛，下盛則夢墮。… 肝氣盛則夢怒，肺氣盛則夢哭 …”라고 표현되어 있다.

臟腑의 氣가 盛하거나 虛하여 꿈을 발생하는 경우도 『內經』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靈樞·淫邪發夢』에서는 “肝氣盛則夢怒，肺氣盛則夢恐懼，哭泣，飛揚，心氣盛則夢善笑，恐畏，脾氣盛則夢歌樂，身體重不舉。腎氣盛則夢腰脊兩解不屬。”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五臟의 氣가 盛한 경우의 꿈이고, 五臟의 氣가 虛한 경우의 꿈은 『素問·方盛衰論』⁶⁾에 비교적 많은 예가 나오니, “是以肺氣虛則使人夢見白物，見人斬血藉藉，得其時則夢見兵戰。腎氣虛則使人夢見舟船溺人，得其時則夢伏水中，若有畏恐。肝氣虛則夢見菌香生草，得其時則夢伏樹下，不敢起。心氣虛則夢救火陽物，得其時則夢燔灼。脾氣虛則夢飲食不足，得其時則夢築垣蓋屋。此皆五藏氣虛，陽氣有餘，陰氣不足，…”라고 하였다.

이 밖에도 『內經』에서는 꿈이 기생충이나 표만감 등과도 유관한 것으로 보았다. 『素問·脈要精微論』⁷⁾에서는 “短蟲多則夢聚衆，長蟲多則夢相擊毀傷。”이라고 하였는데, 短蟲은 蟻蟲이고, 長蟲은 蠐蟲이다. 또한 “甚飽則夢予，甚飢則夢取”⁸⁾라고 하였다.

2) 辨證에의 활용

辨證에 있어서 『內經』에서는 階陽·虛實·臟腑 등을 가려내는

것을 강조하였고, 正氣의 盛衰와 邪氣의亢盛 및 邪氣가 침입한 부위의 구별에 주안점을 두고서 꿈을 진단하였다. 階陽은 八綱辨證의 總綱인데, 『內經』에서는 『素問·脈要精微論』을 통해 “是知陰盛則夢涉大水恐懼，陽盛則夢大火燔灼，陰陽俱盛則夢相殺毀傷。”이라고 하여 階陽이 盛한 경우, 陽이 盛한 경우, 階陽이 모두 盛한 경우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虛實의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內經』에서는 虛實과 臟腑를 결합하여 五臟의 虛實에 따른 다양한 꿈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서술하였다. 구체적인 예는 『素問·方盛衰論』과 『靈樞·淫邪發夢』에 나와 있다.

『內經』에서는 邪氣가 침입한 부위에 따라 어떤 꿈들을 꾸게 되는지에 대해서 『靈樞·淫邪發夢』에서는 “厥氣客于心，則夢見邱山煙火。客于肺，則夢飛揚，見金鐵之奇物。客于肝，則夢見山林樹木。客于脾，則夢見邱陵大澤，壞屋風雨。客于腎，則夢臨淵，沒居水中。客于膀胱，則夢遊行。客于胃，則夢飲食。客于大腸，則夢田野。客于小腸，則夢聚邑衝衢。客于膽，則夢闕訟自刎。客于陰器，則夢接內。客于項，則夢斬首。客于脛，則夢行走而不能前，及居深地窟苑中。客于股肱，則夢禮節拜起。客于胞臍，則夢溲便。”라고 하였다.

2. 『內經』 이후 꿈 이론의 발전

1) 漢代 이후

漢代 이후 꿈에 대한 인식은 더욱 풍부해졌으며 夢診 방면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 최초의 약물학 서적인 『神農本草經』에서는 夢魘에 관한 논술을 볼 수 있다. 여기서는 夢魘이 ‘魘寐’라고 되어 있으며 夢魘을 치료하는 약물이 기재되어 있다. 예를 들면 “犀角은 맛이 쓰고 성질이 차다. 각종 毒과 邪鬼·瘴氣를 치료한다. 鈎吻·鷦鷯·蛇毒을 殺하고 邪氣를 제거하여 魘寐에 미혹되지 않게 한다⁹⁾”, “羚羊角은 맛이 짜고 성질이 차다. 눈을 밝게 하고 기를 돋우며 階을 일으키고 나쁜 피를 제거하여 아래로 쏟아지게 한다. 蟲毒과 惡鬼를 물리친다. 心氣를 편안히 하여 항상 ‘魘寐’하지 않도록 한다¹⁰⁾.”라고 한 것 등인데, 이는 당시에 꿈과 관련한 질병에 대한 약물치료가 시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神農本草經』의 夢魘을 치료하는 약물에 대한 인식은 후세에 夢魘 치료의 기초가 되기도 하였다.

한편 東漢의 張機는 『金匱要略·五臟風寒積聚病』에서 “邪哭¹¹⁾이 魂魄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血氣가 적기 때문이다. 血氣가 적은 것은 心에 속하는 것이며 心氣가 虛한 사람은 두려움이 많고 눈을 불이고 잠을 자려고 하면 꿈에서 먼 곳까지 가고 정신이 흩어지고 魂魄이 멋대로 돌아다닌다¹²⁾.”라고 하여, 心虛·血虛를 꿈을 꾸는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夢交’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仲景은 남녀의 상이한 생리적 특성에 근거하여 夢精과 夢交을 구별하고 여자가 꿈속에서 성행위를 하는 것을 ‘夢交’라고 하였다. 『金匱要略·血痹虛勞脈證并治』에서는 “대저 失精하는 사람들은 아랫배

9) 吳普, 神農本草經, 臺灣, 文光圖書有限公司, p. 180.

10) 吳普, 神農本草經, 臺灣, 文光圖書有限公司, p. 179.

11) 尤怡, 金匱心典, 臺灣, 新文豐出版社, 民國66年, p. 84.

슬픈 감정에 상하여 통곡하며 우는 것이 마치 사귀가 썩인 것 같은 것.

12) 尤怡, 金匱心典, 臺灣, 新文豐出版社, 民國66年, p. 84.

가 캕고 성기의 끝부분이 차며 눈이 아찔하고 머리카락이 빠진다. 脈은 극도로 허한 상태로 扎脈인 동시에 遷脈인 경우는 淸穀·亡血·失精이다. 脉 전체가 扎脈이면서 약간 긴장되면 남자는 夢精을 하고 여자는 夢交를 한다.”라고 하였다¹³⁾. 仲景의 夢精과 夢交에 대한 인식은 후대에 많은 영향을 주어 그가 만든 치료방법과 方劑는 현재까지도 임상에서 상용하는 것 중 하나가 되었다.

2) 魏晉南北朝代

이 시기 夢診과 관련하여 언급할 만한 의학자는 晉의 葛洪이다. 葛洪은 ‘卒驟’이라는 명칭을 제시하였다. 이 卒驟이라는 것은 가위눌림과 같은 악몽을 말하는 것이다. 葛洪은 『肘後備急方·治卒驟寐不寤方』에서 卒驟寐不寤 치료와 辟驟方 20여 개를 수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卒驟寐不寤의 形成原因 및 禁忌에 대해서도 서술하였다. 그는 “가위에 눌려서 깨어나지 못하는 것은 모두 魂魄이 밖으로 떠돌다가 邪氣에 불잡혀서 되돌아오려 해도 제자리로 올 수 없는 것이다. 불을 비추는 것을 금기시 하는데 불을 비추면 (흔백이 불빛을) 따라가서 다시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¹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隋唐에서 宋明에 이르기 까지 많은 의학자들이 받아들였다.

3) 隋·唐代

隋唐의 시기는 사회가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경제가 번창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발전이 있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의학의 수준도 한결 높아져 巢元方·孫思邈 등의 유명한 의학자들이 나온 시기이므로 당연히 夢診에 대한 발전도 있었다.

隋代의 巢元方은 『諸病源候論』을 지었고, 거기서 『內經』, 『金匱要略』, 『肘後備急方』 등에서 언급된 痘夢과 夢診 관련 부분들을 총정리하였다.

『夢與鬼交通候』에서는 “대저 臟이 허약한 사람은 꿈을 잘꾼다. 부인이 꿈에서 귀신과 성교를 하는 것 역시 臟腑의 기운이 허약하고 神守가 쇠약함에 연유한다. 그러므로 허약한 틈을 타 꿈에서 귀신과 交通하는 것이다¹⁵⁾.”라고 하여 夢交가 臟腑의 기운이 허약하고 神守가 쇠약한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夢精을 ‘夢失精’이라 칭하고 虛勞夢泄과 傷寒夢泄로 나누었는데 夢精이 腎氣의 허약함에서 유래함을 강조하였다. 「虛勞夢泄精候」에서 ‘腎虛가 邪氣에 편승되어 邪氣가 險器에 들면 꿈에 교접을 한다. 腎臟은 精을 저장하는데 이제 腎臟이 허해서 精을 제어치 못함으로 인해 꿈에 감정이 움직여 정액을 배설한다¹⁶⁾.’라 하였고, 「傷寒夢泄精候」에서 “邪熱이 腎臟에 편승하면 險氣가 虛해지고 險氣가 虛해지면 꿈에 交通을 한다. 腎臟은 精을 저장하는데 이제 腎臟이 虛해서 精을 제어치 못함으로 인해 꿈을 꾸면서 정액을 배설한다¹⁷⁾.”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巢元方의 설은 후대에 夢精을 腎虛로 보고 치료하는 근거가 되었다.

또한 그는 꿈을 많이 꾸는 것에 대해서도 서술하였는데, 「虛勞喜夢候」에서 “대저 虛勞한 사람은 血氣가 衰損되고 臟腑가 虛弱해서 쉽게 邪氣에 傷한다. 邪氣가 외부로부터 내부로 모여들었

으되 아직 어디에 들지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리어 臟을 침범하여 자리를 정하지 못하고 營衛와 함께 움직이고 魂魄과 함께 날아다니면 사람으로 하여금 잠자리를 불안하게 하여 꿈을 많이 꾸게 된다¹⁸⁾.”라고 하여 꿈을 많이 꾸는 것에 대해 正氣가 虛한 상태와 邪氣에 感한 상태의 두 가지 측면으로 서술하였다.

이상을 보면 巢元方은 正氣의 虛가 癲病의 중요한 원인임을 특히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正氣存內, 邪不可干’이라고 하는 『內經』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巢元方의 說은 宋代의 『太平聖惠方』과 明代의 『普濟方』 등에서도 인용하며 處方과 用藥의 근거로 삼았다.

隋代의 楊上善은 『黃帝內經太素』에서 “무릇 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사람에게 길흉이 있을 적에 먼저 꿈에서 보인다면 이것은 微夢이다. 생각을 집중하고 감정을 깊게 하여 그것으로 인해서 꿈에 보인다면 이것은 想夢이다. 그 병이 든 것으로 인해서 꿈에서 보인다면 이것은 痘夢이다. 이 11가지 꿈은 모두 痘夢이다. 아울러 隅陽의 盛衰, 안으로 배고픔이나 배부름이 있는 경우, 肝肺의 氣가 성한 경우, 長短의 별례가 많은 경우로 인하여 꿈이 된다. 이것은 손상으로 인하여 꿈을 꾸기에 이른 것이니 바로 꿈으로 診斷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周禮』에서 꿈을 6가지로 분류한 이후에 漢代의 王符가 10종으로 발전시키고 나날이 점점 번잡해져 가던 것을 간단히 정리하였다는 의의를 가짐과 동시에 痘夢을 해석해서 疾病을 診斷하는 이른바 ‘夢診’의 개념을 확정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張仲景이 『內經』의 이론을 토대로 漢代이전의 경험들을 총괄하고 夢遺·夢交에 辨證論治를 구체적으로 응용한 이후에, 魏晉南北朝 및 隋代의 각 의학자들의 임상경험과 결론들을 거쳐서 唐代에는 이미 각종 痘夢에 대한 약물치료가 광범위하게 운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孫思邈은 痘夢을 치료하는 수십여 개의 方劑를 발명하여, 夢交·夢遺·夢魘·多夢·夢伏水中·夢歌樂·夢山丘平澤·驚夢喜笑·夢男夢女 등 모두에 대해 일일이 치료약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鍼灸·養生을 응용해서 꿈을 미연에 방지하고 꿈을 치료하는 등 새로운 관점을 적잖이 제시하였다. 또한 孫思邈은 『備急千金要方·診候』에서 『靈樞·淫邪發夢』을 인용한 후 “증후를 잘 진단하는 자가 또다시 이 뜻을 깊이 생각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아름답게 될 것이다¹⁹⁾.”라고 하여 꿈을 분석하는 것이 진단과정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증상들 가운데 하나라고 하였다.

王燾는 『外臺秘要』를 편찬하여 이미 失傳된 고적 가운데 痘夢을 치료하는 方藥을 수집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전염병의 과정 중에 쉽게 나타나는 惡夢·喜夢·夢寤 등에 대해서도 밝혀 놓았다.

唐代의 『新修本草』는 陶弘景의 『本草經集注』을 修訂·增補한 기초에서 集體編纂한 것인데, 여기에도 痘夢을 치료하는 여러 종의 약물이 기재되어 있으니, 遠志·蘇合香·羚羊角·桑螵蛸 같은 것들이다. 또한 “호랑이 머리를 베개로 삼으면 惡魘을 물리친다.”라는 單驗方도 있다.

13) 尤怡, 金匱心典, 臺灣, 新文豐出版社, 民國66年, pp. 48-50.

14) 柴文舉·蔡濬新, 中醫釋夢辨治, 中國, 學苑出版社, 1996, p. 11.

15) 高文鑄 主編, 醫經病源診法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8, p. 440.

16) 高文鑄 主編, 醫經病源診法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8, p. 253.

17) 高文鑄 主編, 醫經病源診法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8, p. 278.

18) 高文鑄 主編, 醫經病源診法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8, p. 253.

19) 李景榮 等, 備急千金要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 9.

4) 宋代

宋은 혼란스러웠던 중국 대륙을 다시 하나로 평정한 시기였고, 儒·佛·仙을 통합하려는 노력이 경주되었던 시기였다. 그래서儒家의 입장에서 道教와 佛教를 취한 결과 新儒學이라는 새로운 사상적 장이 탄생하였다. 의학에 있어서도 이 시기는 儒醫들이 출현이 빈번해지고 제지 및 인쇄술이 발달하여 수많은 저술들이 전파되는 시기였다. 이와 더불어 꿈에 대한 인식도 점점 더 깊어 있고 풍부해졌다. 당시에 출판된 『太平聖惠方』, 『聖濟總錄』, 『太平惠民和劑局方』 등의 대형 방제서적에도 모두 적지 않은 痘夢 치료 방제가 실려 있다.

『太平聖惠方』에서는 “治傷寒後虛損夢泄諸方十四道”, “治虛勞夢與鬼交諸方六道”, “治虛勞夢泄諸方十三道”, “治卒臙諸方十二道”, “治婦人與鬼交通諸方七道” 등에서 痘夢에 대해 전문적으로 다루었다. 夢交를 예로 들면 이는 精氣가 부족한 가운데 風邪나 鬼氣가 간섭한 소치라고 하였다. 즉, 『太平聖惠方·治虛勞夢與鬼交諸方』에서는 “대저 사람은 五行의 수려한 기운을 穀賦받아서 생겨나고 五臟의 神氣에 편승하여 길러진다. 만약 隅陽이 조화로우면 臟腑가 강성하여 邪氣가 간섭할 수 없다. 만약 장차 調和를 잃어서 血氣가 虛衰하게 되면 風邪가 그 허한 틈을 타고 鬼氣가 正氣에 기대게 된다. 따라서 劳傷한 사람은 臟腑의 기운이 약하고 神氣가 지키기 못하기 때문에 邪氣가 허한 틈을 타서 간섭하게 되고 그로 인해 꿈에서 귀신과 交通하게 된다²⁰⁾.”라고 하였으니, 이 내용은 『太平聖惠方』이 巢元方을 계승하여 발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婦人大全良方』, 『奇效良方』 등에서 직접 인용되는 등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또 날마다니는 꿈을 꾸는 것에 대해 “대저 心虛하면 內寒이 생겨나고 內寒하면 陰氣가 왕성해지며 陰氣가 왕성하면 血脈이 虛少해 지는데, (o) 경우) 두렵기를 잘하며 情緒가 즐겁지 못하고, 명치같이 급작스럽게 아프고, 시시로 멀간 침을 뱉기도 하고, 횡격막 부위가 더부룩하고, 잘 잊어버리고 자주 놀라고, 꿈에서 날아다니고, 정신이 흩어지고, 그 脈이 浮하면서 虛한 것들, 이것이 그 증후이다.”라고 하여 꿈에서 날아다니는 것이 心虛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²¹⁾.

이 외에도 각 권에서 痘夢를 치료한 방제가 흩어져 있는 것이 보인다.

당시의 민간 경험방과 의사들의 경험방을 모으고 ‘內府所藏秘方’을 합쳐서 정리한 『聖濟總錄』에서는 잠꼬대(夢囈)를 ‘睡語’라고 하여 그 痘因이 心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虛勞骨蒸의 표현의 하나로 보았다. 『聖濟總錄·骨蒸傳尸門』에 말하기를 “虛勞骨蒸者는 본래 劳熱의 氣가 氣血에 덕지덕지 붙어서 깊이 骨髓로 이어지고 五臟을 侵蝕하고 오래도록 그치지 않아 각각 그 臟器의 虛를 따라 훈증하여 질병이 이루어진다. 脈蒸者는 心에 근본을 둔다. 그 증은 나날이 번민이 더해지고 손발을 내두르고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자 하며 거품이 이는 침을 뱉고 잠자면서 말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하며 맥은 數하다.”라고 하여 夢囈는 병의 위치가 心이고 병의 성질이 熱임을 밝히고 있다²²⁾. 또한 『

聖濟總錄·骨蒸傳尸門·骨蒸羸瘦』에서는 “骨蒸羸瘦는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氣血의 不調와 五勞七傷으로 인한다. … 걸으면 다리에 힘이 없고 밤에 누우면 盪汗이 나고 꿈에 귀신과 교접하며 때로 놀라기도 하고 …”라고 하여 꿈에서 귀신과 교접하는 것이 骨蒸勞熱의 표현 중 하나라고 보았다²³⁾. 또한 『聖濟總錄』에는 痘夢을 치료하는 관련 방제도 100가지 가까이 수록되어 있다.

宋代에 관청에서 운영하는 약국의 조제규범이었던 『太平惠民和劑局方』에도 적지 않은 방제의 적증증 가운데 ‘밤에 이상한 꿈을 많이 꾼다’거나 ‘꿈자리가 편치 않다’거나 ‘꿈에 성교를 한다’거나 하는 등의 내용이 얼거되어 있다.

이상의 大型 方劑學 서적 외에도 宋代의 『濟生方』, 『普濟本事方』, 『婦人大全良方』, 『針灸資生經』, 『三因極一病證方論』 등에서도 역시 꿈과 관련된 논술이 적지 않다.

한편 嚴用和는 질병과 꿈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가 아닌 상호 유발되기도 한다고 생각하였다. 嚴用和는 『濟生方·驚悸論治』에서 溫膽湯의 방증 가운데 “心虛膽怯하면 일에 접촉할 때 놀라기를 잘하는데 꿈자리가 뒤풀어지고 이상스런 것에 훌린 느낌이 들면 마침내 心驚膽怯에 이르게 되어 氣가 鬱滯되어 痰涎을 생기게 하고 痰涎이 氣와 相搏하여 다시 證이 생겨나니 혹 호흡이 짧아지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힘이 없고, 혹 다시금 절로 땀이 나며, 팔다리가 뻏고 음식이 맛이 없고 가슴이 虛煩하여 앓거나 냉거나 간에 불안하다.”라고 하였다. 또한 遠志丸의 方證 중에서는 “크게 놀란 일로 인해서 꿈자리가 뒤풀어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위험한 곳에 가면 신혼이 불안하여 놀라서 두근거리고 두려워서 겁내는 것을 치료한다.”라고 하여 꿈과 心膽의 상관성에 대해 말하였다²⁴⁾²⁵⁾. 또, 『濟生方·脾胃虛實論治』에서 “대저 脾臟이라는 것은 足太陰경이 중앙에 위치하여 戊己土에 속하며 中州에 주관하고 전신의 肌肉를 살피며 足陽明胃經과 서로 表裏가 된다. 表裏가 溫和하면 水穀이 쉽게 腐熟되고 精微를 運化하고 제반의 經絡들을 灌溉한다. 만약에 음식에 절도가 없다거나 혹 生冷한 것에 傷한다거나 혹 思慮가 지나치거나 하면 衝和가 펼쳐지지 못해 그 虛實이 생기니 이로 말미암아 寒熱이 나타나게 된다. 바야흐로 그 虛한 경우, 虛하면 寒이 생기고 寒하면 팔다리를 들지 못하고 음식이 運化되지 못하고 트림을 잘하고 신물을 올린다. 혹 먹으면 구토한다거나 혹 갑자기 먹은 것이 내려가지 않고 배가 아프고 腸이 끊으며 때로는 절로 설사가 나며 팔다리가 무겁게 가라앉고 항상 생각을 많이 하고 사람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지 않고 꿈에 음식이 모자람을 보고 脈이 오는 것이 沈細軟弱한 것은 모두 虛寒한 증후이다.”라고 하여 꿈과 脾胃의 관계를 말하였다²⁶⁾.

許叔微는 夢遺의 辨證論治에 대해 發明하였다. 『普濟本事方·膀胱竅氣小腸精漏』에서 “夢遺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下元이 허약해서 精을 금하지 못하는 경우는 苗香丸을 복용해야 한다. 한창 나이에 氣가 왕성한데 오랫동안 성욕을 참아서 경락이 막

22) 趙佶, 『聖濟總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 1117.

23) 趙佶, 『聖濟總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 1122.

24) 伊廣謙 主編, 『中醫方劑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8, p. 48.

25) 伊廣謙 主編, 『中醫方劑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8, p. 480.

26) 伊廣謙 主編, 『中醫方劑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8, p. 510.

한 경우에는 淸心丸을 복용해야 한다. 육정은 발동하는데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경우를 白淫이라 하는데 良方의 荀苓散이 적합하다. 이것은 바로 항아리에 (무언가를) 끓이는 경우와 같다. 만약 氣가 盛하여 넘치는 경우라면 항아리에 있는 내용물이 끓어서 넘치는 것과 같고, 欲情이 心邪를 動하는 경우라면 항아리를 측면으로 기울여서 내용물이 나오는 것과 같고, 허약하여서 금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항아리에 갈라진 틈이 있어 내용물이 새는 것과 같으니 일괄적으로 약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여 夢精의 각종 증후로 나누어 논술하였다²⁷⁾. 뿐만 아니라 夢魘에 대해 상세히 기재된 醫案도 있다.

宋代의 유명한 산부인과 전문의인 陳自明이 정리하여 집성한 『婦人大全良方』에는 여자의 꿈, 특히 여자가 성관계를 하는 꿈에 대해 말하였다. 『婦人大全良方·婦人夢與鬼交方論』에서는 “대저 사람은 五行의 秀麗한 기운을 받아서 태어나고 五臟의 神氣를 받아서 길러진다. 만약 隅陽이 조화롭게 합하면 臟腑가 强盛하여 風邪나 鬼魅가 傷하게 할 수 없다. 만약 섭생의 도리가 절도를 잃어서 血氣가 虛衰해지면 風邪가 그 (허쇠한) 부위를 틈 타고 귀사가 그 정기를 건드린다. 그러나 부인이 꿈에서 귀신과 교통하는 것은 臟腑의 虛로 인하여 神이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므로 鬼氣가 병이 될 수 있다. 그 증상은 사람을 보려고 하지 않고 마치 상대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때로는 혼자서 말하고 웃거나 혹은 슬퍼하며 우는 것이다. 脈息은 遷伏하고 혹은 새부리 같고 모두 鬼邪가 병이 된 것이다. 또 脈이 오는 것이 緜線하며 度數를 알 수 없고 顏色이 변하지 않는 것도 역시 이 증후이다.”라고 하였다²⁸⁾. 이는 『諸病源候論』의 說을 계승한 것이며 또 後代에 張介賓 등이 이어 받았다.

5) 金·元代

火熱論을 주창한 劉完素는 夢囈·多夢이 내부에 경미한 鬱熱이 있기 때문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는 『素問玄機原病式』에서 “자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속칭 잠꼬대라고 하는데 이는 경미한 热 때문이다.”라고 하였다²⁹⁾.

補土派인 李杲 역시 꿈과 脾胃의 관계를 중시하였다. 『脾胃論·脾胃勝衰論』에서 “헛된 것이 보이거나, 헛된 것이 들리거나, 헛된 마음이 일어나고, 밤에 죽은 사람 꿈을 꾸고,四肢가 막혀서 뒤틀리는 것은 모두 肝木이 너무나 盛하여서 나쁘게 된 것이다.”라고 하였다³⁰⁾. 그는 脾胃를 중시하였기 때문에 꿈에 대해서도 대부분 脾胃와 서로 연관시켜 말하였다.

滋陰派인 朱震亨은 『丹溪心法』에서 夢遣와 热과의 관계를 말하였다. “夢遣의 증은 전적으로 热과 관계된다. 帶下·脫精과 치법이 같다. 青黛·海石·黃柏을 사용하고, … 精滑은 전적으로 濕熱과 관계된다. 黃柏·知母로 火를 내리고, 牡蠣粉·蛤粉으로 濕을 말린다.”라고 하였다³¹⁾.

6) 明·清代

明·清의 시기에는 꿈에 대한 인식도 보다 완전해졌으며 꿈

을 꾸는 원인 방면에서도 특별히 정신적·감정적 요소의 작용을 중시하였다.

明·張介賓은 『類經·疾病類·夢寐』에서 “대저 五行의 調和는 본래 무궁한 것인데 꿈은 心에서 만들어지며 그 근원은 하나이다. 대개 心은 君主之官이고 神의 집이다. 神이 心에서 동하면 五臟의 神이 모두 그에 응한다. 그러므로 心이 이르는 바가 곧 神이며 神이 이르는 바가 곧 心이다. 다만, 心이 神에 이끌려서 꿈을 꾸는 것은 감정이 불은 바가 있어야 하므로 心의 장애이며, 神이 心에 이끌려 꿈을 꾸는 것은 형체가 무형보다 앞설 수 있으니 神의 신령함이다. 대저 心의 신령함은 이르지 못하는 곳이 없으므로 夢象의 기이함 역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 없으니 진실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³²⁾. 心은 神이며 무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는 생각한 바가 있어 꿈을 꾸는 것은 精이 神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원인은 心에 있으며, 감정이 움직인 경우에는 淸心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기초로 清代의 각자들은 꿈을 꾸면 心을 치료하고 꿈을 꾸지 않으면 脾를 치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아울러 약을 복용함과 동시에 禁慾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證에 있어서는 夢遣와 夢交에 대해 비교적 많이 다루었다.

明·戴元禮는 『證治要訣』에서 夢精과 遺精의 원인에 대해 “신경을 과도하게 써서 心이 脾를 잡아주지 못해서 失精에 이르는 경우가 있고, 色慾이 충족되지 못해 精色이 失位하여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있고, 性慾이 과도해서 滑泄을 금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한창 나이라 기력은 왕성한데 오랫동안 色欲이 없어서 精氣가 차서 넘치는 경우가 있고, … 夢遣는 속칭 꿈에서 귀신과 교접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³³⁾.

明·王綸은 『明醫雜著·夢遺精滑』에서 “夢遣, 精滑에 대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脾虛로 생각하고 치료하여 补腎壯精하는 약을 쓰는데 효과를 보지 못한다. 달리 이 證이 대부분 脾胃에 속하여 술과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고, 痰火, 濕熱한 체질의 사람에게 많이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³⁴⁾.

明·張介賓은 “夢遣와 精滑은 모두 失精의 병이다. 비록 그 證이 같지 않으나 근본 원인은 하나다.”라고 하여 원인이 같은 것으로 보았으나 “꿈으로 인해서 정액이 나오는 것을 夢遣라 하고 꿈으로 인하지 않고 정액이 절로 나오는 것을 滑精이라 한다. 夢遣는 精, 火, 虛, 濫이 있으며 情이 動하여서 꿈을 꾸는 경우가 있고 精이 動하여서 꿈을 꾸는 경우가 있다. 情이 動한 경우라면 당연히 淸心를 해야 하고, 精이 동한 경우라면 당연히 固腎를 해야 한다. 滑精은 脾氣가 견고하지 못해서 그러하지 않은 경우가 없다.”라고 하여 夢精과 滑精을 구별하였다.

또, 夢交에는 2가지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첫째는 欲情과 바르지 않은 마음이 의지를 강제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濕賦가 순수하지 못하여 邪氣가 들어 온 경우이다. 치료 상에서는 辨證論治를 강조하였다. 『景岳全書·婦人·婦人夢與鬼交』에 이르기를 “사람은 五行의 반듯한 기운을 받고서 태어난다. 氣가 바르면 바

27) 伊虧謙 主編, 中醫方劑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8, pp. 101-102.

28) 牛兵占 主編, 中醫婦科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8, p. 130.

29) 范永升, 素問玄機原病式新解, 中國,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4, p. 109.

30) 李杲, 脾胃論,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64.

31) 朱震亨, 丹溪心法,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322.

32) 張介賓, 類經,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 278.

33) 戴原禮, 穆傳證治要訣及類方,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96, pp. 116-118.

34) 王綸, 明醫雜著,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94.

르게 되고 氣가 나쁘면 나쁘게 된다. 氣가 강하면 神이 왕성하고 氣가 쇠하면 鬼가 생한다. 예를 들어 刺法論에서는 ‘神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사악한 귀신이 밖에서 간섭하게 된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런 類이다. 그러나 부인이 꿈에서 邪氣와交接하는 경우, 그 證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欲情과 바르지 못한 마음이 의지를 강제하여서 꿈을 꾸는 것이니 이는 귀신이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밖에서 간섭한 바는 없는 경우이다. 하나는 痘膿가 순수하지 아니하여 사기가 들어오고 그래서 妖怪가 서로 범하는 것을 감행하니 이렇게 邪氣가 밖으로부터 온 경우 역시 있을 것이다. 痘因에 內外가 있다면 證도 역시 다른 점이 있을 것이다. 병이 안에서 생긴 경우는 밖으로는 아무런 흔적이 없고 꿈을 꾸는 도중에 만나서 遺失·恍惚·帶濁 등의 證이 있는 것에 불과하니 역시 남자의 夢精과 그 기전이 일치하는데 다만 여자의 경우 대부분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뿐이다. 밖에서 邪氣가 침범한 경우에는 그 證 역시 달라 혹은 언어나 감정이 일관되지 못한 것이 마치 누군가와 마주보고 있는 것 같고 혹은 적막한 것을 좋아해서 사람을 보기 싫어하고 혹은 이유도 없이 슬피 눈물을 흘리는데 안색은 변하지 않고 혹은 얼굴에 도화빛이 뜨는데 그 맥박과 호흡이 언뜻 느리다가 언뜻 빠르고 맥의 1후가 부조하니 혹은 伏脈과 沈脈이 나타나고 혹은 促脈과 結脈이 나타나고 혹은 弦脈과 細脈이 나타나고 혹은 代脈이 나타나는 등 한결 같지 못하다. 이는 모두 妖邪한 징후이다. 무릇 이 둘의 경우에 만약 조리에 실패하여 오랫동안 낫지 못하면 精血이 날로 피폐되고 真陰이 날로 손상되어 潮熱이 일어나고 心神이 고달프고 음식이 날로 줄고 經水가 날로 마르고 肌肉이 깎여 들어가 점점 劍損을 이루며 繁數한 맥이 보일지라 점점 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라고 하였다³⁵⁾.

그리고 夢交의 痘因과 痘機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張介賓은 치료에 있어 “무릇 夢交를 치료하는 경우에 연유한 바는 비록 다르지만 精血이 敗傷하였다”는 면에서는 그 병이 동일하다. 그러므로 무릇 병은 心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당연히 먼저 心을 안정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그러한 뒤에 그 병에 따라서 약을 써야 한다. 神이 動한 경우라면 神을 안정시키고 志를 안정시킬 것이며, 精이 滑泄하는 경우라면 精을 견고히 하고 隅을 기를 것이니 더욱더 당연히 脾腎을 북돋우는 것을 요약의 문호로 삼아 生氣를 돋는 것을 위주로 해야 한다. 만약 妖魅에게 침범을 당하였다면 안으로는 마땅히 正氣를 두루 補하여야 하니 예를 들면 歸脾湯과 같은 類이다. 밖으로는 마땅히 鬼哭穴에 속히 뜰을 떠서 邪氣를 몰아내면, 자연히 점점 나을 것이 뻔하다.”라고 하였다³⁶⁾.

明·李仲梓는 『醫宗必讀·遺精』에서 “꿈을 꾸지 않고 정액이 저절로 나오는 것은 心神이 傷한 경우가 많고, 꿈을 꾸고 난 후에 정액이 나오는 것은 相火가 강한 것이 害가 된 경우이다.”라고 하였다.

明·孫一奎는 『赤水玄珠全集·夢與鬼交』에서 “薛氏가 말하기를 앞의 증(꿈에서 귀신과 교접하는 것)은 대부분 七情에 心血을

虧損한 연유로 神이 보호받을 것이 없는 까닭에 그러하다. 安神定志하는 약물을 투여하면 正氣가 회복되고 神이 자연히 안정될 것이다.”라고 하여 情緒의인 요인이 夢交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³⁷⁾.

明·虞搏은 『醫學正傳』에 말하기를 “낮에 생각하던 것이 밤에 (꿈에서) 보인다. 남녀의 성정이 음탕한데 허한 경우라면 肝腎의 相火가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므로 허약한 사람은 귀신과 교접하는 꿈을 많이 꾼다.”라고 하였다³⁸⁾.

清·喻昌은 부인의 夢交와 瘦血을 연관지었다. 그는 『醫門法律·虛勞門』에서 “여자의 勞瘵는 열명 가운데 두세명 꽂로 血海인 衡脈에 瘦血이 쌓인채 이동하지 못해 血이 말라 月經이 그치고 뱃속이 달고 潮熱이 나며 밤에 꿈에서 귀신과 교접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니 급히 그 쌓인 瘦血을 소통시켜야 하고 人蔘을 가해서 行하게 하면 한나절이면 효과를 본다.”라고 하였다³⁹⁾.

清·吳謙은 『醫宗金鑑』에서 “부인이 七情內傷으로 心脾를 虧損하여 神이 보호받을 곳이 없는 상태에서 鬼邪가 正氣를 범하면 魂魄이 편안하지 못하므로 꿈에 귀신과 교접을 하는데, 혼자 웃었다 울었다 하면서 마치 누구를 마주 대하는 듯한 것이 그 병후로, 마땅히 歸脾湯에 辰砂와 琥珀가루를 섞어서 복용하면 情志가 안정되고 心이 쾌청해지고 魂魄이 편안하게 되어 나쁜 꿈을 꾸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⁴⁰⁾. 즉, 여자들의 夢交가 心脾의 虧損에서 온다고 하였다.

清·程國彭은 『醫學心悟·不得臥』에서 “놀랍고 두려워서 잠자리가 불안한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은 꿈속에서 깜짝 놀라 가슴이 두근거린다. 安神定志丸으로 주치한다.”라고 하였다⁴¹⁾. 또, 『醫學心悟·遺精』에서 “꿈을 꾸고 나서 정액이 나오는 것을 夢遗라 하고 꿈을 꾸지 않고 정액이 나오는 것을 精滑이라 한다. 대저 꿈을 꾸는 경우는 相火가 강함에서 연유하고, 꿈을 꾸지 않는 경우는 心神의 虛寒에서 연유한다. 그러나 지금의 사람들은 몸이 박약하여, 火가 왕성한 경우가 열에 하나요, 허약한 경우가 열에 아홉이다. 나는 따라서 2가지 丸藥으로 나누어서 치료한다. 하나는 淸心丸인데, 火를 濫하여 정액이 유실되는 것을 몇개 하는 법이다. 하나는 十補丸인데, 氣血을 大補하여 氣를 왕성하게 하면 精을 통섭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⁴²⁾.

『本草綱目』에서는 어떤 夢象의 증상을 치료하는 몇몇 전문적이고도 주요한 약물을 제시하였다. 安息香은 부인이 밤에 귀신과 교접하는 꿈을 꾸는 것을 치료한다고 하였고, 桑白皮는 과로하여 심신이 지치고 허약한 것을 보충해 주며, 허리와 신장이 차가운 것과 함께 꿈에서 타인과 교접하여 정액을 배설하는 것을 치료해 준다고 하였고, 鹿角은 물을 부어 갑아 즙을 만들어 복용하며, 遺精과 尿血현상과 함께 밤에 귀신과 교접하는 꿈을 꾸는

37) 孫一奎, 赤水玄珠,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 374.

38) 虞搏,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1986.

39) 喻昌, 醫門法律, 中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p. 232.

40) 吳謙, 醫宗金鑑(中·婦科心法要訣,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 527.

41) 程國彭, 醫學心悟, 서울, 醫聖堂, 1994, p. 205.

42) 程國彭, 醫學心悟, 서울, 醫聖堂, 1994, p. 201.

43) 劉文英, 河永三·金昌慶譯, 꿈의 칠학, 서울, 東文選, 1993, pp. 395-396.

44) 林佩琴, 類證治裁,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379.

45) 石壽棠, 醫原, 中國,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p. 55.

35) 張介賓, 景岳全書 下, 서울, 大星文化社, 1988, pp. 51-52.

36) 張介賓, 景岳全書 下, 서울, 大星文化社, 1988, p. 52.

것을 치료해준다. 또한 부인이 귀신과 교집하는 꿈을 꾸는 것을 치료해준다고 하였다. 기타의 巴戟天·遠志·益智仁·石菖蒲·人蔴·鹿茸·熏草·黃柏 등과 같은 것도 꿈의 어떤 증상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였다⁴³⁾.

淸·林佩琴은 『類證治裁』에서 “옛날 사람들은 꿈을 꾼 후에 정액이 나오는 것을 相火가 강한 것이 害가 된 것이라 하였고, 꿈을 꾸지 않고 저절로 정액이 나오는 것을 心神이 傷한 것일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또 五臟에 보이는 證이 있으면 兼해서 치료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결국은 꿈을 꾸는 경우는 心을 치료하고 꿈을 꾸지 않는 경우는 腎을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였다⁴⁴⁾.

이렇게 꿈과 心의 관계를 강조한 것이 清代의 夢精에 대한 인식상의 특징이다. 이는 꿈을 꾸는 것에서 心神의 위상을 중대시하였다는 것이기도 하다.

淸·莫枚士는 『研經言』에서 “꿈이 風에서 기인하여 夢精을 하는 것은 虛한데 風이 겹친 것으로 仲景는 桂枝湯 중에 龍骨·牡蠣을 넣어서 치료하였다. 桂枝湯은 中風方이다.”라 하였고, 淸·石壽棠은 『醫原』에서 “濕은 地氣에 속하며 地氣는 濁邪가 되는데 濁邪는 사람의 神志를 가장 잘 혼미하게 하니 종종 濕病의 초기에 곧 사람의 神氣를 이상하게 하여 혼미하고 번조하고 고통스러운 바를 모르게 한다. 간혹 정신이 맑아 스스로 주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꿈이나 잠자리는 역시 대부분 불안하여 눈을 감으면 곧 보이는 바가 있다⁴⁵⁾.”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靈樞·淫邪發夢』에서 언급한 正邪가 꿈을 일으킨 경우이다.

결 론

본 연구는 夢診에 대하여 時代별로 의서와 의가를 조사·정리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한의학에서는 비록 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논술은 없지만, 형성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인식과 해법을 가지고 있었으며, 각종 꿈과 관련한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 방면에서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의서에 ‘夢診’란 용어가 처음 나타난 것은 『黃帝內經太素』이지만, 꿈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은 『內經』이 최초이며, 『素問·脈要精微論』, 『素問·方盛衰論』, 『靈樞·淫邪發夢』 등의 諸篇에서 陰陽學說·藏象學說·病因病機學說·運氣學說 등을 근거로 꿈의 형성 원인, 병리적인 기전, 진단 및 치료상의 활용방안 등에 대해 논술하였다. 꿈의 형성 원인과 관련하여 外邪의 침입, 臟腑機能의 실조, 정서적인 요인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內經』에서는 陰陽·虛實·臟腑 등을 가려내는 것을 강조하였고, 正氣의 盛衰와 邪氣의 亢盛 및 邪氣가 침입한 부위의 구별에 주안점을 두었다. 『內經』 이후, 『神農本草經』에서는 ‘夢魘’에 관한 기술이 있으며, 夢魘을 치료하는 약물에 대한 인식은 후세에 夢魘 치료의 기초가 되었다. 張仲景은 남녀의 상이한 생리적 특성에 근거하여 夢精과 夢交을 구별하고 여자가 꿈속에서 성행위를 하는 것을 ‘夢交’라고 하였다. 隋代의 巢元方은 『諸病源候論』에 『內經』, 『金匱要略』, 『肘後備急方』 등에서 언급된 痘夢과 夢診 관련 부분들을 총정리 하였고, 그의 說은 後代 『太平聖惠方』, 『普濟方』, 『婦人大全良方』, 『奇效良方』 등에서도 인용되어 處方과 用藥의 근거가 되었다. 明·清代에는 꿈에 대한 인식도 보다 완전해졌으며, 꿈을 꾸는 원인 방면에서도 특별히 심의 관계 즉, 정신적·감정적 요소의 작용을 중시하였다.

참 고 문 헌

1. 쉴라 레이버리, 김병후 譯. 잠의 치유력. 서울, 도서출판 이채. 2003.
2. 張介賓. 類經.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3. 洪元植.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4.
4. 吳普. 神農本草經. 臺灣, 文光圖書有限公司.
5. 尤怡. 金匱心典. 臺灣, 新文豐出版社. 民國66年.
6. 柴文舉, 蔡瀆新. 中醫釋夢辨治. 中國, 學苑出版社. 1996.
7. 高文鑄 主編. 醫經病源診法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8.
8. 李景榮 等. 備急千金要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9. 太宗命. 太平聖惠方. 서울, 翰成社. 1979.
10. 趙佶. 聖濟總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1. 伊廣謙 主編. 中醫方劑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8.
12. 牛兵占 主編. 中醫婦科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8.
13. 范永升. 素問玄機原病式新解. 中國,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4.
14. 李杲. 脾胃論.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95.
15. 朱震亨. 丹溪心法.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95.
16. 戴原禮. 秘傳證治要訣及類方.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96.
17. 王綸. 明醫雜著.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95.
18. 張介賓. 景岳全書 下. 서울, 大星文化社. 1988.
19. 孫一奎. 赤水玄珠.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20. 嶩搏.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1986.
21. 吳謙. 醫宗金鑑(中)-婦科心法要訣. 서울, 大星文化社. 1991.
22. 程國彭. 醫學心悟. 서울, 醫聖堂. 1994.
23. 林佩琴. 類證治裁.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96.
24. 石壽棠. 醫原. 中國,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